

외식수요증대를 위한 주부의 시간배분행동과 회귀분석

김기영*

目次

- I. 서론
 - II. 시간배분의 이론접근
 - 1. 주부의 시간배분설정
 - 2. 시간배분에 따른 효과
 - III. 시간배분의 회귀분석
 - 1. 조사대상
 - 2. 조사방법
 - 3. 조사항목
 - 4. 주부의 특징
 - 5. 주부시간배분계수 설정
 - 6. 설정결과
 - IV. 외식수요의 회귀분석
 - 1. 회귀분석의 설정
 - 2. 가족전체의 외식지출수요계수 설정
 - 3. 주부의 내식 및 외식횟수수요계수 설정
 - 4. 요인분석의 결과
 - V. 결론
- 參考文獻
ABSTRACT

* 경기대학교 관광대학 조리학과 전임강사

** 본 연구는 1997년도 경기대학교 연구교류처의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I. 서론

외식산업의 급속한 성장배경은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수요와 공급적인 차원의 요소들이 여러갈래로 나누어져 지원을 이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가족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적극적인 변화이다.¹⁾

사회구조의 변화에 힘입어 개개인의 생활범위가 축소화 현상을 가져오면서 파생되는 핵가족화 현상, 또한 반면에 여성들의 사회활동영역의 급격한 확산, 더군다나 과거 전업주부들까지도 사회직업주부의 활동진출로 인해 외식시장은 급격하게 시장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매우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 1996년말 외식규모는 23조원으로서 1가구당 외식비는 평균 170,070원 횡수는 월평균 47회, 4인가족 기준으로 약 80,000원 정도가 외식비로 지출된다는 결과이다.

가정내에서만 활동의 범위를 한정되었던 전업주부들의 사회진출확산은 순수 레저 및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주부들에 비해 내식수요 뿐 만 아니라 외식수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부들의 내식의 형태가 대부분 외식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나오는 결과일 것이다. 전업주부들은 내식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늘상 시장에서 구입했던 식재료를 자신이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의 노동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연결해서 식사를 「생산」의 개념을 도입해서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순수임금을 계산하여 볼 때, 궁극적으로는 임금의 상승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주부의 가사노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단지 식사준비시간에만 소요되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시간(Lost Time)으로 간주한다면 주부의 식사생산을 위해 투자한 노동시간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주부의 시간배분에 준하는 요인과 주부의 외식행동에 준하는 요인과는 시간배분에 따른 공통성을 갖고 있다」²⁾고 생각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면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의 대부분은 내식을 위한 식사준비시간으로 할애된다고 가정할 때, 외식시간에 준하는 시간소요 배분요인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주부들의 시간배분은 전업주부와 직업주부와의 관계에서 함축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 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이 전업주부나 직업주부사이에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고 있는 현상을 경제이론에 기본 바탕으로 하고 하나의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취지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할애되는 시간가운데 외식에 소요되는 시간배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외식수요증대에 얼마만큼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회귀분석방법³⁾을 동원하여 목적달성에 필요한 검증자료로 활용하였다.

1) Robert D. Reid, *Hospitality Marketing Management(Second Edition)*,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1989, p 135-136

2) 압도생, 외식산업론(외식산업의 경쟁과 성장) 농림통계협회, 1996, p 136

3) 회귀분석방법이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통계적분석방법이다.

(이석규, 창업 및 사업성 검토, 다산출판사, 1997, p 270)

II. 시간배분의 이론접근

1. 주부의 시간배분설정

주부들의 시간배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Gronau은 Becker의 「시간 배분의 이론모델」을 가사노동, 시장노동, 레저활동노동 등 3가지 활동에 따른 “시간 배분의 이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Gronau은 Becker의 시간배분 모델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임 하였다. 그 모델에 있어서 시간배분은 「시간소비 주체자의 균등을 위한 필요한 조건은 가사생산의 한계가치와 생산경제 및 소비적 시간과의 사이에 대한 한계대체율(Leisure Shut Price)과 동등하다. 또한 노동시간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한 것이 실질 임금율과 동등하게 된다는 것이다.」 것을 명확하게 했다.⁴⁾

이러한 조건내용을 도식화하여 설명하여 볼 때, 표(II-1)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 처럼 횡축은 주부에게 이용가능한 전시간(T_0)를 나타내고 가사생산 계수는 $TDoAoCo$ 로 나타난다. 시장노동에 참가하지 않고 단지 가사생산만을 위해 종사하는 전업주부들의 경우 경제적 가치와 시간적 가치의 선호하는 무차별곡선이 가사생산계수에 접하고 있는 점은 B_0 이 된다. 가정내에서 가사생산활동과 시장노동활동에 모두 참가하고 직업주부의 경우, 가계소득선은 $TDoAoE_0$ 이며, 실질적인 주부의 노동임금율은 가사생산 계수에는 A_0 로 접하는 직선 $E_0 A_0$ 의 기울어진 곡선이다. 또한 무차별 곡선이 가계소득선에 접하는 점은 B_0 로서 각각 배분한다.

이렇게 볼 때, 주부들의 가사노동 활동시간과 시장활동시간의 배분은 전업주부와 직업주부들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도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B_0 지점에서 전업주부의 무차별곡선이 기울어져 있는 형태는 가사생산의 한계생산물에 매우 동등하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전업주부는 이용가능한 전시간 T_0 상에 TL_0 를 가사생산에 배분하고 나머지의 L_0 를 레저활동에 배분한다. 같은 모양으로 직업주부는 자영업주부⁵⁾보다는 가사노동활동은 TNo 의 시간을, $NoLo$ 를 시장노동활동에, Lo 시간을 레저활동에 각각 배분한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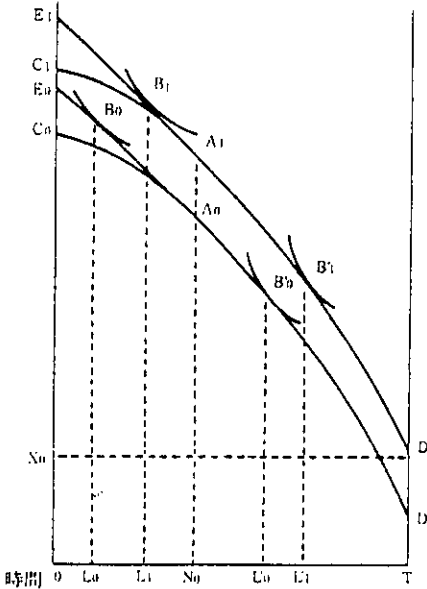
4) Gronau, Reuben,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7 (December 1977) p 1099-1123

5) 자영업주부란 가정내의 가사노동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자영업에 참가하는 주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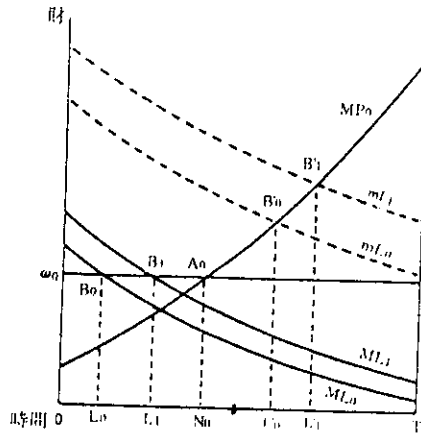
6) 도표에서 B_0, B_1 에 접해있는 재화와 시간선호무차별계수는 B_0 이며 B_1 에 접해있는 무차별곡선은 각각의 선호체계를 표시한 것이다. 전자는 직업주부의 선호체계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전 Dot 은 주부의 노동시간이외의 가계소득을 표시한 것이며 $DoD=CoC$ 은 가계소득의 상승액을 표시한 것이다. X_0O-DT 은 상승후(주부의 노동소득이외)의 가계소득을 표시한 것이다.

시간배분효과에 따른 곡선

〈표 1〉



〈표 2〉



2. 시간배분에 따른 효과 분석

1) 가계소득 상승의 효과

주부의 시간배분설정에 따른 결과는 <표 1>의 내용을 기초로해서 작성되어진 <표 2>를 이용해서 가계소득⁷⁾의 상승이 주부의 시간 배분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MP₀곡선은 가사노동에 따른 한계가치생산물 곡선으로 볼때, 가사생산계수 (표 1 TDoAoCo)의 접선에 붙은 기울곡선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가사생산계수는 한계생산력 체감이 가정되어 진것과 같이 표의 우단 Do를 기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사노동의 한계가치 생산물 곡선은 좌측으로 내려져 있다.

mL₀의 점선곡선은 시장노동에 참가하고 있지않은 전업주부의 Leisure Shut Price곡선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선곡선은 가계소득선상에 평가되어진 레저활동시간배분의 한계평가액곡선으로 볼수 있으며, <표 1>의 가계소득선(TDoAoEo)과 교차하는 점으로 무차별 곡선의 기울곡선임(전업 주부의 재화 대 시간과의 한계대체율에 동일하다)을 나타내고 있다.

주부의 레저활동시간은 <표 2>의 좌단 0을 기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Shut Price곡선은 우측으로 내려져 있다.

ML₀은 시장노동에 참가하고 있고 취업주부의 Leisure Shut Price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ω₀은 실질임금율을 나타내는 지점으로서 <표 2>에서는 횡축에 평행하게 직선으로 나타내고 있다.

7) 가계소득은 주부들이 가정내에서의 순수노동시간을 제외한 가전전체의 소득을 말한다.

다음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들 각각의 근로소득이 외 가계소득의 상승결과가 주부의 가사생산활동과 시장노동 활동 및 레저활동의 시간배분에 부여할 수 있는 시간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① 전업주부의 경우

주부의 노동소득 이외의 가계소득 상승결과는 가사생산계수와 가계소득곡선을 수직으로 위쪽에 이동될 수 있지만, 가사생산계수의 실제적인 형태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므로 가사노동의 한계가치에 대한 생산량의 크기는 결국 불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내용은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사노동의 한계가치에 대한 생산량의 곡선(MP₀)의 형태와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레저활동시간을 일반적인 경제가치의 기준에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가계소득선이 교차하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임을 확대해석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Leisure Shut Price가 상승하기 위해서 Shut Price 곡선은 위쪽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전업주부에 대한 가사노동의 한계가치 생산량 곡선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래 가타 다른 이 두가지의 곡선은 종래의 교점(B'0)오른쪽 위로 교차하는(B'1)이 되는 것이다. 이 결과 전업주부의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에 배분되어진 시간은 TL'0에서 TL'1로 단축되어짐과 동시에 레저활동시간도 동일하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즉, 레저활동시간에는 재화의 축적이 없을 경우 가사노동시간은 반대로 더 증가하는 반면, 레저활동시간은 짧게 된다는 것도 생각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러한 곡선의 흐름에서 파악할 수 있다.

② 취업주부의 경우

주부들의 시간배분에 따른 가계소득상승 효과의 결과로 볼 때,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職業主婦가 순수 경제소득중 노동소득이외 전체가계소득의 상승이 주부의 「시간 배분」에 있어 어떠한 효과를 가지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심층 접근해 보는 과정에서 시간배분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리라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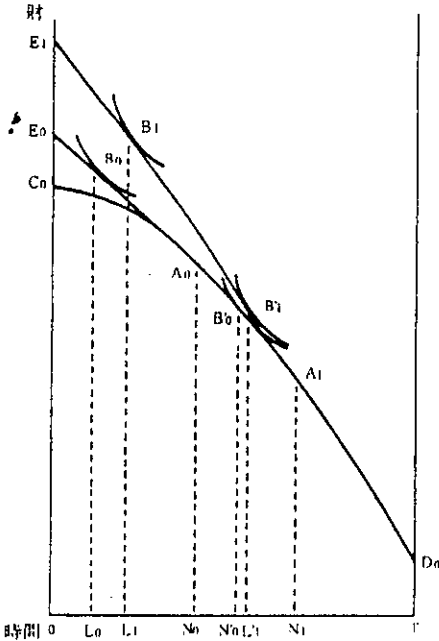
주부의 노동소득이외의 가계소득의 상승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Leisure Shut Price곡선은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위쪽으로 ML1까지 이동한다. 그러나 가사노동생산에 대한 한계가치생산량 곡선 MP₀의 형태와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또한 MP₀와 실질임금 w₀와의 교차하는 점 A₀도 변하지 않을 뿐더러, 가사노동곡선(TN₀)도 결과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Leisure Shut Price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질임금선 w₀와 Leisure Shut Price 곡선과의 교점은 종래의 B₀에서 B₁으로 변화한다. 그결과, Leisure는 O₀에서 O₁까지 증가하고, 역으로는 시장 노동은 No₀부터 No₁로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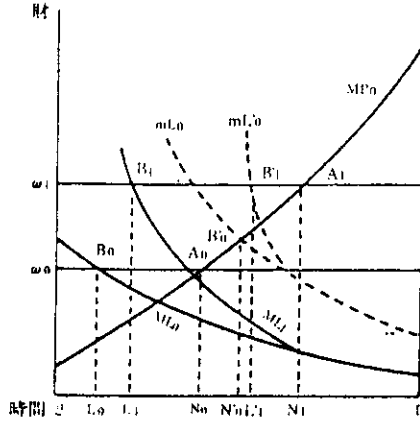
그러나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의해서는, 레저가 열등욕구의 경우는 시장노동 시간이 증가하고, 레저- 시간이 짧아지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시간배분의 효과에 따른 곡선

<표 3>



<표 4>



2) 임금 상승률의 효과

① 취업주부의 경우

취업주부들의 가사노동, 시장노동, 레저활동 등의 실질임금율이 상승하더라도 생산계수의 형태와 위치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표 4>에서와 같이 가사노동의 한계가치생산량 곡선 MP0의 형태와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업주부들의 실질임금율은 w_0 에서 w_1 으로 상승하고 있는 관계에 의거하여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했던 w_1 과의 교차점 A1은 종래의 교차점 A0보다도 반드시 오른쪽(횡축선상에서는 N1)에 있어야 한다.

이처럼 곡선이동의 결과가 나타난 것은 임금율의 상승이 결국 직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새로운 가계소득곡선 $TPoA_1E_1$ 이 교차하는 무차별곡선은 종전의 무차별 곡선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재화에 대한 경제가치와 시간에 비해서 한계 대체율은 증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말해서 Leisure shut price 곡선은 위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무차별곡선의 형태와 위치는 상승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다시말해서 재화에 대한 경제가치와 시간에 비해서 대체율이 좀더 크다는 것이다.⁸⁾

8) 레저활동시간을 직업주부들은 선호하는 정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저활동에 대한 직업주부들의 선호가 좀더 강하기 때문에 무차별곡선에서 나타나는 결과의 곡선의 정도는 그 상승정도가 좀더 급격하다. 취업주부들은 필요욕구의 시간에 비해서 한계 대체율이 감소하고 (소득선호가 강하다.) 느슨하면 무차별 곡선에서는 그 상승은 완만하다.

따라서 <표 3>에 있어서는 새로운 임금율 w_1 과 위쪽으로 이동했던 leisure shut price 곡선과의 교차점 B'_1 , 또한 B'_1 은 임의적으로 결정되어진것은 아니라, 일반적인 불확정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전업주부의 경우

<표 3>에 있어서 가사노동에 T_1 이상의 시간을 배분하고 있던 전업주부는 실질 임금율의 상승의 계기로 가사노동의 일부를 시장노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한층 더 높은 가계소득의 획득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가사생산에 있어서의 대체효과가 우월하고 시장노동에서의 참가를 발휘하게 된다.

가사노동에 T_1 이하의 시간을 배분하고 있던 전업주부는 시장노동참가에 필요한 요인을 없도록하기 위해서 종래 그대로의 시간을 계속 배분하게 될 수 있다.

위에서 서술되었던 가계소득, 주부의 임금율의 변화에 수반되는 여건변동효과를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표 5>에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주부들의 생활패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살펴봐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즉 취업시간의 증가, 가사노동시간의 감소는 내식에서 외식으로 전환을 불러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주부들의 시간소비행태변화

시간소비행태	가 계 소 득		주 부 의 임 금 율	
	전업주부	취업주부	전업주부	취업주부
취업시간		-(+)	+(0)	+
가사노동시간	-(+)	0	-(0)	-
레저활동시간	+(+)	+(+)	+(+)(0)	+(+)
외식	-(+)	-(+)	-(0)	-
내식	+(+)	+(+)	+(+)(0)	+(+)

III. 시간배분의 회귀분석

1. 조사대상

시간배분의 회귀실증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었던 기법은 다음의 전화 앙케이트 조사에 의했다. 조사대상자는 한국통신의 전화가입자중 전화번호부를 참고로 수도권(주로 서울을 중심으로)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2.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전화소유자의 주부 1,50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설문문항에 따라 질문법에 의해 실시했다. 실시기간은 1996년 9월부터 1997년 6월(10개월)까지 주말을 이용하였다. 그중 성의있게 질문에 응답한 주부는 1,422명이고 그 나머지는 실증분석에 도움이 되지않게 무성의한 응답자 이기 때문에 제외했다. 응답자중 특히 한가족들이 외식을 위해 지출하는 주당비용이 20만원이상었다든가, 또는 식사를 전혀하지 않았던 회수가 주 7회 이상의 주부를 제외하고 404명을 실질적인 집계대상으로 했다. 이중 주부의 취업 상황별로 살펴보면 전업주부가 223명, 자영업주부가 44명, 직업주부가 137명으로 나타났다.

3. 조사항목

조사 항목은 간단하게 가족구성의 규모, 응답주부의 연령, 취업상황, 1일당 수입 (전업 주부에 대해서는 기대수입액, 자영업주부는 수입 목표액), 1일간 취사시간, 정기적으로 레저활동내용, 주부의 식사상황, 가족의 외식지출액과 연간수입 등이다.

또한 조사대상으로 설정했던 가족구성들은 조사주부를 포함하여 가족의 평균수는 약 3.39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전국가계조사서” 세대 평균 3.66명 보다 약 8% 낮다. 1세대당 가족의 연간 평균 수입은 약 40%정도 상승하였다.

4. 주부의 특징

조사대상주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의 내용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업주부의 경우에는 내식회수가 전업주부보다 매우 적고 외식회수에서는 전업주부보다 상당히 많지만 직업주부는 근무주변의 사원식당이나 또는 일반 도시락대용으로 외식회수가 많고, 레저활동의 기인하여 외식의 회수가 적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직업주부의 취사시간은 전업주부보다 짧고, 정기적인 예능교육(취미생활) 등의 레저활동을 하고 있는 주부들도 적으며 레저활동의 시간도 짧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에 자영업주부는 취업일수⁹⁾에 관계없이 레저활동시간 등의 비율은 다른쪽 보다는 많지만, 그외의 항목은 전업주부와 직업주부의 중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주부시간배분계수 설정

주부들의 시간개념이라는 것은 시간배분요소를 직접받아들일 수 있는 주부의 시간 배분 계수에 의한 변수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주부의 가사노동시간, 시장활동시간 및 레저활동시간에 준하는 시간배분요소 즉 효용계수, 가사생산계수, 가계소득, 주부임금율이 주부의 1일 해당하는 취사시간, 월간 취업일수, 레저활동에 어떤식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바로 시간배분모델의 설정이다.¹⁰⁾

주부의시간배분계수

$$T_{ij} = A_{0j} + A_{1ij} V_i + A_{2ij} w + A_{3ij} N_j + A_{4ij} n_{4j} + A_{5ij} E_j + e_{ij}$$

T_{ij} : 주부의 1일당 평균취사시간 「취사시간계수」

A_{ij} : 월취업일수 「취업일수계수」

$j = 1$: 주부전체 $j = 2$: 전업주부 $j = 3$: 직업주부

V_i 은 「주부이외의 가족연간수입」 「주부의 근로소득이외의 원천으로부터의 가계소득」의 대리변수

w : 주부의 1시간당 수입 (천원)

N_j : 가족총구성원

n_j : 주부의 연령 19세 이하일 때 $n_j = 1$ 50세 이상일 때 $n_j = 0$

$j : 2, 3$ 은 $A_{4ij} = 0$

E : 직업주부 모형 (=1)

e_{ij} : 오차항

9) 자영업주부들은 취업일수에 관계없이 서예, 꽃꽂이, 노래, 댄싱, 에어로빅, 요리, 노래 등 취미생활이 포함된 여가선용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

10) 홍종선, 통계자료분석(SAS의 사용방법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탐진, 1994, p 173

<표 6> 전업, 취업주부의 1일 취사시간, 월간취업일수에 대한 시간배분의 결정요인

종속변수 설명변수		주부전체		전업주부	취업주부	
		1일취사시간	월간취업일수	1일취사시간	1일취사시간	월간취업일수
편회귀계수	1. 주부이외의 가족 년간 수입	0.463	*** -0.1587	-0.5295		*** -0.3596
	2. 주부의 1시간당의 수입	+ -7.0809	1.5630	2.4114	0.3787	3.1412
	3. 가족원 총수(人)	*** 10.6663	-0.1863	** 8.2945	** -15.0527	-0.0980
	4. 주부의 연령 49세 이하(=)	-	-	-4.8824	** 1.3848	-0.3037
	5. 직업주부모형 (=1)	*** -23.4929	*** 16.2661	-	1.4589	-
	6. 정수	*** 1182.4260	*** -14.9818	*** 170.1266	*** 124.5031	*** 16.3952
표준회귀계수	1. 주부이외의 가족 년간 수입	0.0034	-0.0828		0.0303	-0.2884
	2. 주부의 1시간당의 수입	-0.0725	0.1130	-0.0886	-0.1754	0.3663
	3. 가족원 총수(人)			0.0209	0.2489	-0.0176
	4. 주부의 연령 49세 이하	0.1955	-0.0241	0.1587	0.0111	-0.0232
	5. 직업주부 dummy (=1)	-	-	-0.0467	-	-
R2		0.0786	0.8066	0.0210	0.1217	0.2258

주의) 1) 「주부이외의 가족 연간수입」의 단위는 백만원, 「주부의 1시간당 수입」은 천원이다.
 2) ***은 1% 수준, **은 5%수준, *은 10%수준이고, 편회귀계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냄.
 3) +은 편회귀 계수가 표준오차보다 큰 것을 나타낸다.

위의 <표 6>에서 나타난 것 처럼 직업주부의 1시간당 수입은 상여금을 포함한 1개월 평균 수입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당 수입을 환산한 금액, 자영업주부는 1시간당 기대수입(취업의 의지가 없는 주부의 기대 수입은 0원으로 했다)에 의한 것으로 본다.

6. 설정결과

주부들의 외식수요 시장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배분모델설정 계측결과는 <표 6>에서 나타내어지고 있다. 회귀정식의 설정결과 설명력(R^2)은 전업주부의 취사시간계수에서는 약 2%가 낮게 볼 수 있으며, 그것이외는 8%에서 80%의 범위에 있다.

또한 주부이외의 가족구성원들의 연간수입, 주부의 1시간당 수입의 편중회귀수는 유의한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부들의 사회활동에 따른 외식수요 시장성분석 설정결과는 직업주부를 중심으로 전업주부의 상황과 비교해서 결과를 살펴보자.

1) 주부근로소득이외 원천으로부터의 가계소득영향

지금까지 계측결과에서는 직업주부의 취사시간 계수 속에서 주부이외의 가족구성원들 연간수입의 표준편차회귀계수는 플러스(+)임에도 절대치는 작게 나타났다.(0.0003)

다시말해서 「가족구성원들의 연간수입」이 취사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정도는 그다지 강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업일수계수에서의 계수추계치는 마이너스(-)임에도 크다.(-0.2884), 이러한 경우 가족구성원들의 연간수입은 시장노동시간을 감소시키도록 작용한 결과이다.

한편 전업주부의 취사시간계수와 주부의 1시간당 수입의 계수는 마이너스(-)에 있어도 그 절대치는 매우 작게 나타난다.(-0.0386)

2) 임금수준의 영향

임금수준에 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계측결과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직업주부들의 취사시간계수와 주부의 1시간당 수입의 계수는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치는 중위권(-0.1754)를 맴돌고 있다. 다시말해서 높은 임금율은 취사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취업일수계수와 임금율의 계수는 플러스(+)요인으로 극히 크게 나타난다.(+0.3663) 반면에 높은 임금율은 직업주부의 시장노동 시간을 큰폭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업주부의 취사시간계수 가운데 주부의 1시간당 수입의 계수추정치에 대한 절대치는 매우 작으며(0.0209), 결국 전업주부들의 취사시간에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계측결과의 계수는 절대치의 크기와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정했던 주부의 시간배분 모델이 적절한 임금수준에서 타당성의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¹⁾

11) 소미혜일량, 노동공급의 이론, 서천준작 편, 노동시장, 일본경제신문사, 소화 46년

IV. 외식수요의 회귀분석

1. 회귀분석의 설명

1) 전체소득과 가격에 대한 외식수요계수

주부들의 외식수요량(Dg)은 일반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경제조건과 마찬가지로 가족구성원들의 “전체소득수준”과 외식업체의 상품 “가격수준”에 따라서 외식수요계수가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서 외식의 대한 경제적 의미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식가격”이 외식의 수요량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정내의 구성원들 내식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의해서 생산량과 횟수가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주부가 내식 생산을 위해서 배분하는 시간에 따른 비용(cost)이 내식의 비용가격에 비해서 외식의 수요량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친다. 여기에서 소득과 가격은 Becker의 시간요소를 파악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설정한 “외식수요계수”는 다음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된다.¹²⁾

전체소득과 가격에 대한 외식수요계수

$$D_g = B_0 + B_1(T_w + V) + B_2(P_{bg} + t_g w) + B_3(Ph_{bh} + thw)$$

위의 식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소득($T_w + V$)은 이용가능한 시간 「T」를 모두 생산 노동에 해당하였던 경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가계의 모든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주부의 노동 소득 T_w 와 주부의 노동 소득 이외의 가족소득 V (주부이외의 가족의 노동소득 및 전가족의 비노동소득을 포함한다)와의 합계이다. 또 외식의 모든가격($P_{bg} + t_g w$)은 외식의 생산에 투입시켰던 시장경제 투입량(Input)의 시장가격과 외식구매자가 외식을 위해서 시간의 비용(Lost)($t_g w$)과의 합계이다.

b_g : 외식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주입되었던 시장경제의 투입량(Input)관계이다.

P_g : b_g 에 대응했던 시장가격의 하나의 관계로 설정

t_g : 음식점까지의 왕복시간, 음식점에서의 기다리는 시간 등 외식을 위한 상품구매에 걸리는 여러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

w : 주부의 시장 임금을(또는 그 평가액)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내식에 소용되는 모든가격($Ph_{bh} + thw$)은 외식에 소용되는 모든가격에 첨부되는 숫자 g 를 h 에 첨가하는 것은 같은 의미의 가격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내식생산에 관련되는 모든 주부의 노동시간 예를들자면 쇼핑, 조리, 레저활동시간 조리준비를 위해 소비되는 사항 등의 시간이 th 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12) Prochaska, F.J. and R.A. Schrimper, Opportunity cost of time and other socioeconomic effects on away-from-home food consump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55(November 1973) p 598-603

2) 실증분석에 직접 응용가능한 외식수요계수

전체소득과 가격에 대한 외식수요계수는 자료(data)상의 제약으로부터 직접 실증분석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증분석에 응용가능한 외식수요계수를 직접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상관관계분야 자료(Cross Section data)분석에서 볼 때, 경제와 Service 의 시장가격은 어느 외식업체에 있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즉 다른분야에서 접근하여 보면 어느가게에 있더라도 $P_g P_h$ 는 공동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b_g 와 b_h 은 가게사이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가정하고 $B_2(P_g b_g)$ 와 $B_3(P_h b_h)$ 는 상대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상대치 B' ($B' = B_0 + B_2(P_g b_g) + B_3(P_h b_h)$)는 중간상대치로 처리한다. 더욱이, $B_4 = (B_1 T + B_2 t_g)$ 라고 놓고, 이것을 실증분석에 직접 응용한 외식수요계수의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실증분석에 직접 응용가능한 외식수요계수

$$D_g = B' \cdot o + B_1 V + B_4 w$$

2. 가족전체의 외식지출수요계수 설정

가족전체의 구성원들중 가정밖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주부와 취업하고 있지않은 전업주부의의 관계에서 효용계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상한다면, 상황변수E(직업주부일 때 E = 1, 직업이 없을 때의 E = 0)를 실증분석에 직접 응용가능한 외식수요계수에 추가했다. 또한 가족의 규모와 연령구성을 나타내는 독립 변수와 오차항수를 추가해서 다음의 중회귀식 가족전체의 외식지출수요계수를 설정했다.¹³⁾

가족전체의 외식지출수요계수

$$D_{gj} = A_{0j} + A_{1j} V_j + A_{2j} w_j + A_{3j} N_j + A_{4j} n_{lj} + A_{5j} E_j + e_j$$

- D_{gj} : 가족전체의 조사일전 1주간 외식지출(천원)
- V_j : 가족의 연간수입 (백만원)
- w_j : 주부의 1시간당 수입(천원)
- N_j : 가족구성원 총수(명)
- n_{lj} : 중학생이하의 자녀수(명),
- E_j : 직업주부일 때 1, 전업주부일 때 0
- e_j : 오차항수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 $j = 1$: 주부전체
- $j = 2$: 전업주부.
- $j = 3$: 직업주부를 나타낸다.

13) Prochaska 전개논문, p 586-597

3. 주부의 내식 및 외식횟수 수요계수의 설정

가족전체의 외식지출 수요계수의 설정 방법과 주부의 내식 및 외식횟수 수요계수 설정은 같은 의미로 여겨진다. 보통 조사가구 구성원들 주부의 1주일간 내식횟수와 외식횟수와의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주부의 내식·외식 횟수 수요계수를 도출한다. 그러나 주부개인의 외식수요를 추정하는 계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전체 외식지출수요 계수에서 나타난 중학생이하의 자녀수(명)를 “주부의 연령이 50세이하”라는 항목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주부의 내식 및 외식횟수 수요계수를 설정하는데는 세부항목으로 주부전체, 전업주부, 직업주부별로 추정하였다.

주부의 내식·외식횟수 수요계수

$$D_{ij} = A_{0ij} + A_{1ij}V_j + A_{2ij}w_j + A_{3ij}N_j + A_{4ijn}n_j + e_{ij}$$

- D_{ij} : 1주일간의 내식 및 외식 횟수
- n_j : 주부의 연령이 50세이하일 때 1, 50세이상일 때는 0
- $j = 1$: 내식
- $i = 2$: 외식
- $j = 1$: 주부전체
- $j = 2$: 전업주부
- $j = 3$: 직업주부를 나타내고 있다.

4. 요인분석의 결과

1) 가족전체의 외식지출의 결정요인

가족전체의 외식수요지출계수식의 중회귀식에서 요구했던 편회귀계수와 표준편회귀계수의 부호와 크기를 검토하고 그것들이 갖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요인분석의 결과사항을 도출하였다. 중회귀식에 대한 계수의 추정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7>에 나타내지고 있다.

가족전체의 외식지출에 대해서 “가족의 연간수입” “주부의 1시간당 수입”에 대한 편회귀계수는 어떨든 플러스(+)의 수치로 나타난 의미이고, 또한 편회귀계수가 표준오차보다 크게 되어있다. 가족의 규모를 나타내는 “가족구성원 총수(명)”도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다. 외식지출의 결정요인으로서 결과의 상대적 크기를 각 독립변수의 표준회귀계수에 의해서 측정하고 “가족의 연간수입”(표준회귀계수는 0.3215), “가족구성원 총수”(0.2049)의 효과는 크지만, 그러나 “주부의 시간당 수입”의 효과(0.0800)에 비해 비교적 작았다.

한편, 가족전체의 외식지출에 대해서 주부의 취업상황을 나타내는 “직업주부”(상황변수 - 0.0716), 가족의 연령구성을 나타내는 “중학생이하의 어린이(자녀)수”(-0.1437)의 편회귀 계수가 마이너스(-)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직업주부의 가정에는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많아서 외식횟수가 낮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표 7> 가족전체의 외식지출의 결정요인

설명변수	중속변수		가족 전체의 외식지출			
	편회귀계수			표준편회귀계수		
	주부전체	전업주부	취업주부	주부전체	전업주부	취업주부
1. 가족의 연간수입(백만원)	*** 0.5538	*** 0.6007	*** 0.7569	0.3215	0.3278	0.4835
2. 주부의 1시간당의 수입	+ 1.0016	+ 1.1003	-0.5188	0.0800	0.0715	-0.0476
3. 가족구성원 총수(명)	*** 1.4320	** 1.4876	0.1623	0.2049	0.2128	0.0230
4. 중학생 이하의 자녀수(명)	*** -1.3476	** -1.6824	0.1962	-0.1437	-0.1877	0.0194
5. 취업주부	+ -1.2586	-	-	-0.0716	-	
6. 정수	1.3564	-0.3561	2.1108			
R2	0.2016	0.2053	0.2071			

- * 주의 : 1) 외식지출은 조사일전 1주간의 외식지출이다.
- 2) 「주부이외의 가족의 연간수입」의 단위는 백만원, 「주부의 1시간당 수입」의 단위는 천원이다.
- 3) ***은 1%수준, **은 5%수준, *은 10%수준이고, 편회귀계수가 호환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은 편회귀계수가 표준오차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 4) 중회귀식의 설명력은 약 20%이다.

2) 주부의 내식·외식횟수 결정요인

주부의 내식·외식수요계수의 편회귀계수의 추정결과는 <표 8>에서 나타내고 있다. 중회귀식의 설명력은 주부전체의 1주일간 내식과 외식횟수에 22%이다. 또 외식수요계수에서의 “가족의 연간수입” “주부의 1시간당 수입”의 편회귀계수는 어떻게 하더라도 플러스(+)가치가 있다는 의미이다.

주부의 내식과 외식은 일반적으로 양자택일로 결정되므로 주부전체 수요계수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주부의 외식횟수를 검토해야 한다. 주부전체의 외식횟수에 대해서 “가족의 연간수입” “주부의 1시간당의 수입” 주부의 직업에 대한 유무상황을 나타내는 상황변수 “직업주부” “주부의 연령 50세이하”(상황변수)의 편회귀계수는 플러스(+)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가 있다. 역으로 “가족구성원 총수”의 부호는 마이너스(-) 의미이다. 표준 편회귀계수는 “직업주부”가 특히 크고(0.3145) 이것은 주부의 외식이 사원 식당이나 도시락으로 대신하는 것의 음식점 이용등, 취업과 관련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가족구성원 총수”의 계수는 플러스(+)의 가치가 있으며, 더욱이 표준회귀계수(-6.2351)의 절대치도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가족수가 많아서 가사노동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정외에서의 취업이 곤란하게 되는 정도가 높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변수를 요약하여 볼 때, 취업에 수반되는 외식의 기회가 작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16 외식수요증대를 위한 주부의 시간배분행동과 회귀분석

“가족의 연간수입”의 편회귀계수에 대한 상황변수는 매우 유념해야할 분야이지만, 표준회귀계수(0.1111)은 “주부의 1시간당 수입”보다도 적다.

이것들의 여러계수를 총체적으로 판단한다면, 주부의 외식횟수는 취업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실 및 “주부의 1시간당 수입”등 주부의 취업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고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 역으로, 내식횟수의 경우는 “가족구성원 총수”(표준편회귀계수는 0.2638), “가족의 연간수입”(-0.1450)등 가정의 사정에 관계하는 독립변수 및 표준회귀계수의 절대치가 외식회수의 경우와 비교해서 크게 나타나는 것은 주부의 내식회수가 외식 회수의 경우보다 가정의 사정에 보다 강하게 영향을 기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표 8〉 주부전체의 내식·외식횟수 결정요인

설명변수	종속변수	내식회수	외식 회수계		
			외식 회수계	영양섭취적 회수 (사원식당등)	레저 활동적외식 회수(음식점등)
편회귀계수	1.가족의 연간수입(백만원)	*** -0.0740	*** 0.0482	+	+
	2. 주부의 1시간당 수입	* -0.3313	*** 0.4133	** 0.2896	+
	3. 가족구성원 총수 (명)	*** 0.5459	*** -0.4139	*** -0.2745	** -0.1394
	4.주부의 연령 50세이하(명)	*** 0.6517	*** 0.4228	0.1372	** 0.2855
	5. 취업주부 상황	*** 1.7392	*** 1.3933	*** 1.7164	*** -0.3230
	6. 정수	*** 20.6337	*** 0.3229	*** -1.1564	*** 1.4793
표준편회귀계수					
1. 가족의 연간수입(백만원)		-0.1450	0.1111	0.0629	0.0965
2. 주부의 1시간당 수입		-0.0894	0.1311	0.1067	0.0665
3. 가족구성원 총수(명)		0.2638	-0.2351	-0.1810	-0.1341
4.주부의 연령 50세이하(명)		-0.1442	0.1099	0.0414	0.1258
5. 취업주부 상황 (=1)		-0.3341	0.6145	0.4499	-0.1235
R2		0.2203	0.2072	0.2805	0.0376

* 주의 : 1) 「주부이외의 가족의 연간수입」의 단위는 백만원, 「주부의 1시간당 수입」은 천원이다.
 2) ***은 1%수준, **은 5%수준, *은 10%수준이고, 편회귀 계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은 편회귀계수가 표준오차 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V. 결 론

주부의 사회활동에 따른 외식수요 시장형성과정을 살펴볼 때, 가족의 연간수입, 주부의 1시간당 수입이 높다면 가족전체의 외식지출도 많게 되고 가족구성원 총수가 많을수록 가족전체의 외식지출도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주부의 1시간당 수입의 표준편회귀 계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가족전체의 외식 지출의 크기는 가족전체의 연간수입과 가족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변수요인 결정의 정도가 크다.

개개인 및 가족의 외식행동과정과 가족전체규모에 따라 외식지출에도 주부의 시간배분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시사되어지고 있다. 취업주부의 내식회수는 전업주부보다 작고 외식회수에서는 전업주부보다 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업주부는 사원식당등 도시락대용의 외식회수가 많은 반면에 레저적 외식회수 또한 전업주부보다 작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취업주부의 취사시간은 전업주부보다 짧고, 정기적인 레저여가선용 등의 레저활동시간에 투자하는 경우도 전업주부보다 적다는 것이 매우 놀랄만한 일이다. 또한 레저활동의 시간도 짧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Becker의 “시간배분의 이론”에 연구의 기초를 두고 “주부의 시간배분Model”, “외식 수요모형을 설정하고 전화가입자의 무작위추출에 의해 표본조사 data를 분석했던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부의 시간배분 모델에서는 주부의 1시간당 수입상승은 주부의 취업일수를증가하게 하고, 또 취사시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지만 이것들은 어쨌든 외식회수는 증가한 반면, 내식회수는 감소의 요인을 갖고 있다.

주부의 외식회수 수요계수측정결과를 살펴볼 때, 주부의 1시간당 수입의 편회귀계수는 플러스(+)가치로 되어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부의 임금을 상승은 물론 외식회수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부의 1시간당 수입이 주부의 “취업일수”와 “외식회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간에 모순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양자를 동일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공통요인으로 되어있다. 취업일수계수에서는 주부이외의 가족년간수입 증가는 취업일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주부의 1시간당 수입은 취업일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또한 취업일수계수에 있어서 주부의 1시간당 수입의 표준 편회귀계수(0.3663)가 주부이외의 가족의 연간수입(-0.2884)의 절대치보다 컸다. 이와같은 것은 주부의 취업시간배분이 가계소득보다 주부의 임금을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부의 취업은 소득선호성과 동시에 가계의 보조적수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해지고 있다.

가족구성원 총수에서 볼 때, 시간배분모델에서는 취사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수요 모델에서는 주부의 외식수요계수의 가족구성원 총수 계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에 의해 내식회수의 계수에서는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부의 1시간당 수입과 주부이외의 가족년간 수입 등은 주부의 취업시간, 가사생산노동, 레저활동시간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주부의 외식을 규정하는 요인이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직업주부들은 주부이외의 가족년간수입증대 또는 임금을 수준의 상승이 레저활동적 외식회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임금을의 상승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취사시간(가사노동)의 감소는 오로지 취업일수(시장노동)의 증가로 연결되고, 말을 바꾼다면, 시장경제의 획득을 위해서 시간과 외식이 “생산지향적 활동”에 배분되어짐과 동시에 “소비지향적 활동”에도 배분 되어진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최근에 있어서 주부의 사회적 진출에 따르는 외식의 증가, 내식으로부터 외식에의 이동은 식사의 사회적 내실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参 考 文 献

1. 이석규, 창업 및 사업성 검토, 다산출판사, 1997
2. 홍종선, 통계자료분석(SAS의 사용방법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탐진, 1994
3. Robert D. Reid, Hospitality Marketing Management(Second Edition),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1989
4. Gronau, Reuben,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7(December 1977)
5. Prochaska, F.J. and R.A. Schrimper, "Opportunity cost of time and other socioeconomic effects on away-from-home food consump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55(November 1973)
6. 岩瀬 道生, 外食産業論(外食産業의 競争과 成長), 農林統計協會, 1996
7. 小尾惠一郎, 勞動供給의 理論, 西川俊作 編, 勞動市場, 日本經濟新聞社, 昭和46年,

ABSTRACT

The Study On Housewives' Allocation of Time and Analysis of Recurrence for the Increase in Demand for the Food Service Industry

Kim Ki Young

This study has been made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model of Becker's time allocation concerning housewives' advance into society—a primary cause for enlarging the scope of our food service market and developing the food service industry as a whol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housewives' activities in the course of allocating their time and the demand for the food service through Becker's theory of "Total income and Total price", analyzing th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e questionnaires sent to the housewives in metropolitan areas.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s shows that the demand for food service is closely related to women's market activities. Yet it has become clear that the demand for food service correlates with housewives' allocation of time in terms of sharing profits.

As a result, it is true that the increase in housewives' income per hour has brought about the increase of the term of employment and the decrease in their cooking time, thus greatly increasing the opportunities to dine out. In other words, the increase of housewives' income and the decrease in their cooking time have come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shortening the time needed to take care of family matters while increasing the demand for eating out, or food service. And it is also clear that the common practice to dine out is derived from the reduction in our domestic duties, indicating the choice of social division of labour, but it needs to be noted that the gradual increase in women's income is sure to have exerte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is practice of eating out.